

기술력 있는 중기 적극 지원...광주은행 '기술금융' 빛났다

금융위 실적평가 '우수은행' 선정...지난해 하반기 200억 투자 창업기업 대출잔액 비중 57.7%...신규 투자액 소형은행 3.5배

광주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기술력을 지닌 지역 중소기업에 200억원을 신규 투자하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우수 은행에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평가) 결과 소형은행 부문에서 광주은행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기술금융은 부동산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도 기술력만 있으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담보가 없더라도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더 많은 한도의 대출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술·혁신성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반기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대형은행 부문은 하나기업은행이 우수은행으로 선정됐다.

광주은행은 기술력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신평가(TCB)에 따른 기술기반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그 결과 기술금융 실적평가가 실시된 이후 광주은행이 처음 1위를 차지했다.

광주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 가운데 창업기업 비중은 57.7%에 달한다. 소형은행 평균 31.7%보다 26.0%포인트 앞섰다.

하반기 기준 광주은행의 기술기반 신규 투자액은 200억원으로, 역시 소형은행 평균 투자액 56억 4000만원의 3.5배 수준에 달한다.

지역밀착경영과 포용금융, 현장중심경영을 표방하는 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자영업자 상생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 미래가치와 성장성, 보유 기술수준, 연구개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앞장서고 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냉장고 부품을 납품하는 하남산업단지 내 ㈜한영피엔에스가 기술 특허 3종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설향전자금을 지원했다.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사업장을 찾아 이 업체의 뛰어난 기술개발역량(R&D)을 확인하고 정책자금 추천서와 우대금리를

를 제공하고 자금 추가 지원도 시행했다. 이로써 ㈜한영피엔에스는 일반 중소기업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보다 연간 수천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UV디지털인쇄 기법을 통한 포장인쇄 기술' 특허를 보유한 ㈜세움(광주 평동공단)도 광주은행으로부터 제조설비 확충을 위해 자금 지원을 받고 우대금리가 적용됐다.

광주은행은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 경영이념을 실천하면서 금융감독원 2021년 관계형금융 우수은행 중소형그룹 1위에 선정되고 2021년 지역 재무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 5월 말 기준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 3만481건, 1조3775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9년 11월에 첫발을 내디딘 포용금융센터(충장로5가)는 지역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지원과 재무조정 상담, 경영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송 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진심을 담은 금융상담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진행해 적기에 자금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을 강화한 광주은행이 금융감독원 '2021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우수은행에 선정됐다. 송중옥(오른쪽) 은행장이 ㈜한영피엔에스(대표 김윤섭)를 찾아 기술력을 확인하고 자금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는 모습. <광주은행 제공>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

미국, 장·단기물 금리 역전 '경기침체 전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6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3.239%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3.295%로 8.4bp 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 8.4bp, 5.9bp 떨어져 연 3.283%, 연 3.269%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3.231%로 6.9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 5.3bp, 5.1bp 하락해 연 3.115%, 연 3.094%를 기록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국채 금리는

이번 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 금리(2.83%)와 10년물 금리(2.82%)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짙어졌다. 이날 국채 금리도 3년물이 30년물, 50년물을 뛰어넘었다.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를 웃도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를 제칠 경우는 경기침체의 전조로 해석된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하는 국내총생산(GDP) 나우 모델에 따른 미국의 2분기 GDP 성장을 추정치가 -2.1%까지 떨어지는 등 경기 둔화 신호가 잇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도 미국과 유로존, 영국,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주요국들이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하면서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이를 선반영해 경기침체 위험에 더욱 주목하는 분위기다.

박민영·안재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금리의 높은 변동성은 지속할 전망"이라며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경기침체 가능성과 함께 수요 둔화가 인플레이션 완화로 연결되리라는 기대가 금리 하락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방역지원금 토해 내라고?

중기부, 잘못 지급된 1·2차 지원금 환수 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1·2차 방역지원금 오(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예를 내었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사례 3831건을 확인하고, 7일 해당 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한 다음 6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오지급 의심사례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오지급건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했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전일까지 소상공인 약 353만개사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전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의 93%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5월30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지급'을 실시했고, 지난달 13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약 50만개사가 확인지급을 신청했고, 중기부는 이중 33만8000개사에 대해 검증이 마쳤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약 11만4000개사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들의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8월 중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60돌' 광주전남제주기계공업협동조합 기념 행사

광주전남제주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정연)은 지난 5일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조합과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한 조합원들을 초청해 우수 조합원에 대해 포상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은 전국 57개 협동조합을 축하하기 위해 창립 60주년 기념

현판'을 제작해 수여식을 갖기도 했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지역 조합은 광주전남제주기계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광주전남니트공업협동조합, 전남직물공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중앙회와 함께 성장한 협동조합이 다양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며 다른 협동조합의 본보기가 되는 건설

한 조합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정연 이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 60년간 산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회원사와 산업구성원 모두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협동조합 정신을 계승·발전시킨 다양한 공동사업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송전망 접속 여유 정보 공개...신재생에너지 분산화

한국전력은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계통정보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송전망 접속 여유 정보를 이달 1일부터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특정 지역에 쏠려 있어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망 보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12월 전력공급 여유 정보를 공개해 수요의 분산을 유도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신재생 송전망 접속 여유 정보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지역 분산화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송전망 접속 여유 정보 제공을 통해 154kV 이상의 송전망 접속을 희망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40MW 초과)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송전망 접속 가능 여건을 고려해 여유 지역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별 접속현황'에서는 전국과 지역별 송전망 여유 현황을 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

으며, '송전망 여유용량 조회'에서는 연계 희망 지역의 발전소별 송전망 여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단기 여유정보 조회'를 통해 연계 희망 지역 발전소의 차단기 여유 정보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송전망 접속 여유 정보는 반기 단위로 올라갈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수요와 신재생에너지의 분산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력계통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관리로 정확하고 투명한 송전망 접속 여유 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진흥기업 '건설사업자 상호협력' 최우수

하도급 자금 집행 등 긍정 평가

진흥기업(주)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진흥기업은 '95점 이상'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2단계 높은 등급을 받아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진흥기업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력을 위해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시의적절한 자금 집행 등을 적용한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추락 사고 예방 관련 안전 강화 조치 등의 안전 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가점을 받았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총 13곳으로, 추후 공공 공사 입찰 등에서 가점 혜택 및 건설산업기 본법상 벌칙 감경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종합·전문건설 업체들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업체와 상생을 추구하며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안전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해 나가는 건설사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기업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용등급은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이며,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도 A등급으로 상승했다. 또 지난 5월 품질에 대한 기술력과 안전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부문 우수시공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수자원공사, 장흥·주암댐 주민 화합행사 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장흥댐과 주암댐 등 전국 27개 댐 주변 주민들과 화합하는 행사를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는 장흥댐 주변지역 주민 200여 명과 화합행사를 벌였다.

이날 참여 주민들은 초청가수 무대와 전통춤 공연 관람, 연식·네일아트·공예체험 등을 했다. 행사는 장흥군과 지역 여성 봉사단체, 자활센터 등이 협업해 추진했다.

수자원공사는 오는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전국 27개 댐 곳곳에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주민 참여형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문화·예술행사와 주민 건강증진,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터, 체험 공간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92.01(-49.77)
↓ 코스닥	744.63(-6.32)
↓ 금리(국고채 3년)	3.239(-0.062)
↑ 환율(USD)	1306.30(+6.00)